

국제활동

‘아시아 개도국에 석면의 측정·분석 기술 전파’ 아시아 개도국 산업보건관계자 초청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5월 19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5일간 연구원 석면분석실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산업보건관계자 6명에 대해 석면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국내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필리핀 등 6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기관에서 선발된 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2008년부터 시작된 공단의 세계보건기구(WHO) 산업보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면의 측정·분석 기술 전파와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분석방법과 건축자재 등 고형시료 중의 석면 분석방법을 주제로 연구원 석면분석실에서 관련 이론은 물론 1인 1현미경을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자국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되었다. 연구원은 이번 교육의 결과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면분석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향후 석면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WHO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몽골 국가전문감독원과의 공동연구 수행

몽골의 산업보건감독관 1명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방문하여 2014년 5월 12일(월)부터 6월 6일(금)까지 직업환경연구실과 직업건강연구실에 머물며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의 작업환경평가 및 관련 안전보건제도를 소개하였고, 실험실에서 직접 분석기술을 전수하였으며, 몽골의 안전보건제도와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 받았다. 또한, 역학조사 및 생체시료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직업병 예방관련 제도와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트남 노동보호연구원 초청연수 실시

공단은 베트남 노동보호연구원과의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하여 관계자 5명을 초청하여 5월 12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기간 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인자의 작업환경평가방법과 노출기준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특히, 연수자들의 관심분야인 석면에 대하여 국내의 석면금지현황을 소개하였고, 베트남의 석면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을 제시하였다.



소식·동정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회공헌활동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4년 5월 27일(화)에 울산 신청사 이전 이후 처음으로 연구원 인근 울산 태화강 산책로 주변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입사 및 연구원 전입을 환영합니다.



- 직업건강연구실
- 강영중 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뉴스레터

OSHRI Newsletter / No.13 June 2014



연구원장 메세지

“건강한 직장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

오늘날 커져만 가는 사회적 압박과 치솟는 소비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작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며 질병을 예방하면 이러한 치솟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생산성과 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가 있습니다만 기업 수준에서는 특수한 직업적 유해·위험요인, 업종 등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우수실천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도를 기업들에 제공하고자 WHO는 ‘노동자 보건(Workers Health)에 대한 실천계획(2008-2017)’을 기초로 2010년 4월에 ‘WHO의 건강한 직장을 위한 틀’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이 틀에 적합한 우수사례와 도구가 현실적인 실행을 위해 수집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한 직장이란, “근로자와 관리자가



프로세스를 이용, 다섯째, 지속가능성과 통합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과 통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업의 이런저런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과 함께 격려도 하고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사업장이 건강한 직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면 그동안 상을 받고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들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여 과학적 근거를 널리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환경에 의한 안전, 보건 및 복지적 측면에서의 요구와 직장으로부터의 개인적 건강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와 직장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이용하는 데 협력하는 직장”입니다.

또 건강한 직장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는 첫째, 지도자(사업주와 노동조합)의 헌신과 약속, 둘째,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셋째, 기업윤리 및 적법성, 넷째, 효과성과 지속적인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 정 선

안전보건 단신

2014년도 제2차 안전보건정책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5월 7일(수)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년도 제2차 안전보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학계전문가 등 31명이 참석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정책과장의 '장년근로자 산재예방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 후 군산대학교 안홍섭 교수의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이 이루어져 산재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포럼은 산업·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의 모색 및 설정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찬모임 형태로 매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도 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4년 5월 29일(목)~5월 30일(금)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연구학회인 한국안전학회와 매년 춘계 공동학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1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금번의 세월호 참사로 안전학회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고의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로 대형사고 발발시 위기대응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해 활발한 정보교류가 있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IT·SW융합지원센터" 산업안전 분야 IT 예상과제 협력지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2014년 5월 2일(금) 울산대학교 양재균 교수, 울산정보사업협회 구자록 회장, 울산테크노파크 정혜영 팀장, (주)원정보기술 신필순 부장 등과 "산업IT·SW융합지원센터"의 산업안전분야 IT예상과제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IT·SW융합지원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여 민간IT·SW 융합 역량강화 지원 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신용융합산업 모델을 개발지원하는 단체다.

안전연구실 최상원 박사는 "IT를 활용한 안전기술 구축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2013년에는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 휴대폰을 활용하여 쉽게 활선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을 활용한 활선 감지 및 경보기"를 특허출원하였다.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2014년 5월 9일(금) 서울대학교병원 세미나실에서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폐활량검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원, 폐활량검사교육 강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폐활량 검사 교육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검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론 교육은 기초, 실무,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여 검사자들이 수준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습교육은 원하는 최소인원만 참가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안전보건 단신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 건립 기공식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4월 30일(수)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센터에서 지상3층(연면적 6,295㎡) 규모의 국내 최초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 시설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암 등 유해성을 밝히고 만성독성 예측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세워진다. 아울러 독성시험결과의 국제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 국제표준인 'AAALAC-I'와 연구신뢰성 국제표준인 'GLP'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산업발전과 더불어 신규 화학물질 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험시설 건립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확보에 따른 직업성 암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AALAC-I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 : 실험동물 취급 윤리 준수 등 동물실험관련 제반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국제실험동물관리 인증협회의 활동
-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 화학물질 등의 독성시험에 있어 인력, 시험시설, 조직운영, 운영절차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 신뢰성이 인정된 시험기관



안전분야 중장기 연구방향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2014년 5월 29일(목)에 경기도 여주 썬밸리 세미나실에서 한국 안전학회 임원진들과 안전분야 중장기 연구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희토류 유해성 연구현황 및 전망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2014년 5월 13일(화) 회의실에서 희토류 유해성 연구 현황 및 전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화학물질센터 임경택 연구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김택수 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 희토류의 독성학적 유해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미래 희소금속 산업동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미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의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 기관간 상호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희토류 : 세라믹, 고성능 자석, 금속합금, 촉매,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7개 화학원소의 통칭으로, 그 유해성에 대한 평가 및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중임

제18회 품질대상 품평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방호장치·보호구의 성능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품성능 및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홍보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8회 품질대상 품평회를 5월 28일(수) 개최했다.

신청대상은 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성능검정을 득한 방호장치, 보호구 및 방폭 전기기기이다.

시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1개 제품(상금 200만원), 재해 예방혁신상 1개 제품(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3개 제품(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 3개 제품(상금 각 50만원)에 대해 실시한다.

품질대상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2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전시되며, 책자, 온라인 등을 통해 우수 제품이 소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4개사에서 35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대상은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재해예방 혁신상으로 조작버튼을 기계식에서 광전자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편의성을 높인 '프레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이 수상하였다.